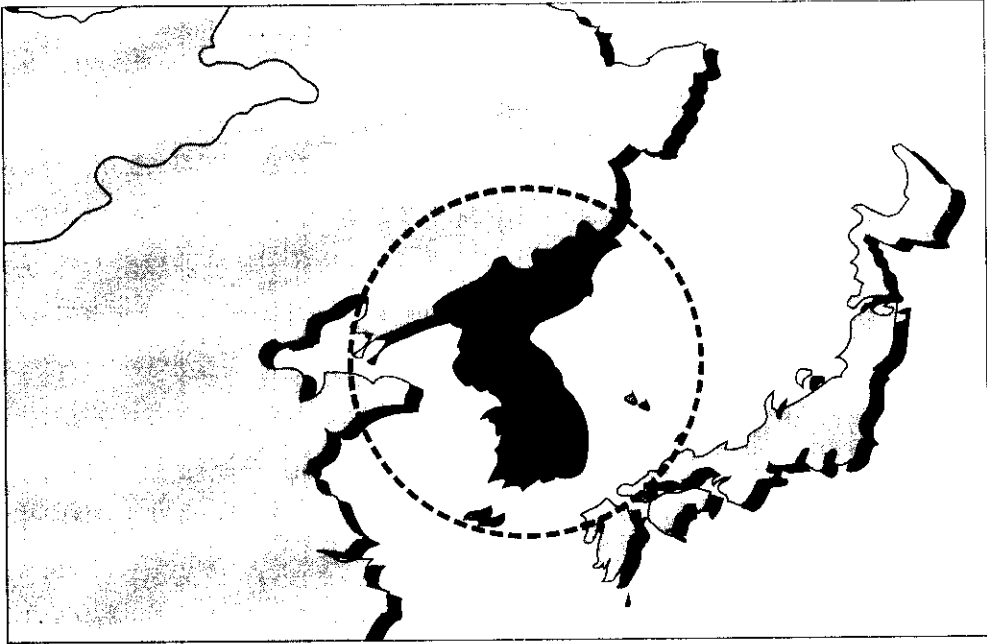


시사논단



34. 북한 주민의 생활상과 의식 변화 전망

이은숙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52. 북한과 조총련의 정치·경제적 상관성

진희관 / 동국대학교 강사, 정치학

65. 중국의 對한반도 시각 변화와 4자회담

금희연 /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북한 주민의 생활상과 의식 변화 전망¹⁾

이은죽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 요인으로는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 구소련 및 동구 공산 정권들의 몰락과 사회주의체제의 종식, 장기적인 경제 침체 현상과 대홍수, 권력 승계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객관적인 상황 조건이 변했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현실에 체념하거나 당국의 사상 사업에 동조하며 생존을 영위할 것이라는 가설이 성립한다. 그 이유는 북한 당국이 사상 사업, 교양의 강화로 의식과 행동을 묶어두어 체제를 유지하려는 노력, 사상 교육과 병행한 일탈에 대한 통제와 집단 압력의 계속, 일반 주민들의 당과 정권에 대한 충성심 유인책, 상당수 일반 주민들의 외부 정보로부터 격리됨에 따른 비교 집단의 결여 때문이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요소는 외부 세계에 대한 정확하고 사실적인 정보의 입수 내지 유입이다. 이러한 정보가 포화되어 사람들의 인지적 불일치와 당국에 대한 불신이 전사회적인 범위로 확산되어, 이제는 더 속일 수도 없고 체제를 지탱해가기가 벅찬 수준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할 수 있다.

결국, 북한 체제가 변하는 데는 북한 엘리트층 내부에서 생긴 분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할 수 밖에 없고, 일반 주민들의 생각이 좀 바뀐다고 해서 체제 자체의 변혁을 가져오리라는 예상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머리말

최 근 신문 보도에 따르면, 평양행 비행기 안에서 만난 북한의 '무역일꾼' 이

“식량 사정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못 견디는데 우리는 그래도…”라고 실토했면서, 그 이상 말을 잊지 못하는 장면이 이어 몇가지 실정에 대한 현지 보고가 나오고 있다. 첫째, 김일성대학이 식량 사정으로 휴교하고 있으며, 지방으로 귀향하는 학생들에게 “올라올 때는 쌀을 가지고 올라오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소식이다. 다음 “현재 평양에는 그래도 한 달에 잠곡과 쌀을 섞어 3 kg이 배급(성인 1인당)되고 있지만, 지방에는 3 달 전부터 배급이 끊겼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는 보도가 있고, 이 정도의 곡식으로는 하루 두 끼 죽을 끓여 먹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필자가 충격으로 받아들여진 보고 장면으로는 “산기술에서 나무 껍질을 벗기고 있는 한 여인을 직접 보았다”는 기사가 있다. “그 여인은 등에 배낭을 맨 채 약 20~30 cm 정도의 칼로 열심히 나무 껍질을 벗기고 있었다.”²⁾

1) 본 논문의 초고는 명지대학교 북한연구센터 학술대회(1996년 5월 21일)에서 발표되었다.

그밖에도 이 기사를 보내온 재미 동포 통신원은 지난 1991년 10월 방북 후 1994년 10월에 재차 북한을 다녀온 사람으로서, 평양 시내에 자전거가 부쩍 늘었고, 각종 외국인 상대 백화점이나 상점에서는 전에 없던 가격 인하 공세로 외화 획득에 열을 올리고 있었으며, 아스피린과 같은 의약품도 품귀 현상이 심각하였고, 외화는 달러가 공식 환율의 95배인 북한돈 195 원에 암거래되고 있었으며, 농촌에서는 트랙터를 볼 수 없고 보습으로 일하는 농부를 보았다고 보도하였다.²⁾ 이런 종류의 목격자들의 증언은 최근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 정치인, 기자, 국제 기구 인사, 귀순자 등 뿐만 아니라, 최근 자주 미국을 방문하는 북한 당국의 고위 인사들도 솔직하게 식량과 에너지를 중심으로 북한 경제가 어려움을 실토하고 있다.

그러한 정보를 접하게 되는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인가? 우리가 북한에 대한 관심을 제기할 때는 항상 남북 관계의 개선, 나아가서는 민족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북한의 사정이 악화된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여러 가지 정치·경제적·군사적 고려를 배경에 두고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이 과연 변할 것인가, 변한다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핵심적인 쟁점의 하나로 떠오르게 된다.

주민의 변화가 북한 체제의 변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그러한 주민의 변화가 과연 추후의 남북 통합 과정에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주민의 변화란 주로 행동과 의식의 변화를 가리킨다. 우리의 주된 관심은 의식의 변화이다. 비록 행동과 의식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둘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가 의식에 대하여 파악하려면 행동을 관찰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경제적 사정이 악화하고 있는 북한에서 ① 주민의 생각은 과연 바뀌고 있는가, ② 있다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리고 ③ 그것은 남북 관계 개선과 통일 전망에 어떤 함의를 지니는가? 더 나아가서 ④ 그것이 통일 이후의 사회 통합에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며 우리 사회에 어떤 종류의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항상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은 너무도 한정되어 있어서 간접적인 2차 자료에 주로 의존하고, 이론적인 수준에서 추론하는 방법밖에 다른 길이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이론적 관점

북한 주민의 생활상과 의식 변화의 전망을 주제로 삼았을 때, 우선 지금 북한에서 전개하는 생활상의 변화가 주민들의 의식에 어떤

2) 「한겨레신문」, 1996. 5.

3) 위와 같음.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만일 현재의 객관적 경제 사정으로 주민들의 의식에 변화가 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그러한 의식 변화가 혹시 북한 체제 변화에도 어떤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심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남북 관계의 개선을 염두에 두고 생각할 때, 항상 고려하게 되는 또 하나의 관심사로서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사항에 까지 미치게 된다.

이렇게 보아, 우리가 개구성할 수 있는 이론적 질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①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는 사람들의 의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② 사람들의 의식 변화가 사회 체제의 변화에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는가? ③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어떤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첫번째 질문에 대한 이론적 자원은 주로 사회 심리학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론적 관점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는 구조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기제에 관한 이론적 자원이고, 다른 하나는 상황이 바뀌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과 인식을 그러한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는가에 대한 이론이다.

먼저 사회·경제적 상황을 하나의 사회 구조적 현상으로 간주했을 때, 그 구조와 개인

간의 관계, 나아가서 구조의 개인에 대한 영향력 구사는 구조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는 이론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구조의 성격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 ① 사회명목론적 입장에서 보면 구조가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개인들의 행동으로 구성된 것, 다시 말해서 개인들의 상호 작용으로 구조가 형성된 것, ② 구조가 개인의 행동과는 관계없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즉, 홍수나 지진처럼 사람들의 작용이 개입하지 않은 사고와 같은 구조적 사건, 그리고 ③ 구조가 부분적으로는 개인들의 행동으로 구성되지만, 또 부분적으로는 우연이나 기타 요소로도 구성될 수 있다. 예컨대, 빈곤이라든가 전쟁과 같은 것은 두 가지의 복합적 결과라 하겠다. 여기서 첫번째 유형 즉, 구조가 거의 전적으로 개인들의 행동 혹은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지면 그 구조는 개인의 행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며, 특히 이 경우 사람들의 동조 행위가 두드러진다는 것이 이 이론의 논지다.⁴⁾

다음, 사람들이 어떤 믿음 혹은 인식을 지니고 있다가 현실적 상황이 그 신념을 옹호할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났을 때, 거기에 어떻게 반응 혹은 적응하는가를 다루는 이른바 인지적 불일치(cognitive dissonance)의 이론이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이나 인식을 강하게 지니고 그에 의지하여 기

4) 차재호, 1993, pp. 2~5

대했다가 자신이 바라던 결과가 아닌 일이 일어나서 자기의 신념이 현실과 상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주변에 자기와 동조하는 지지자들이 없으면 믿음을 포기하지만, 동조자나 지지자들, 특히 강한 지지가 있으면 비록 현실과 상치한다 해도 본래 자신의 신념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고수하게 된다는 것이다.⁵⁾

두번째 질문인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면 그로써 사회 체제나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사회 변동 이론 가운데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사회 변동에 있어서 인간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표적인 예는 Max Weber의 개신교 윤리 연구이다. 그 이후로 특히 근대화론에서는 이 논지를 그대로 적용한 사람들이 많다. 근대화론에서는, 그 점을 전제한 다음 그러면 어떻게 그처럼 중요한 의식을 변화시켜서 근대화를 성취하도록 할 수 있는가 하는 데로 관심을 집중시켰다. 여기에서 의식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서 외부로부터의 전파, 다시 말하면 정보 유입과 교육이 가장 두드러진다. 그렇게 해서 의식을 변화시키면 근대화 또는 발전이 용이해진다는 것이다.⁶⁾

그러면 사람들의 의식은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다시 사회 심리학적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이 어떤 태도나 신념을 갖게 되는 데에는

역시 정보를 얻어야 하고, 그 정보를 얻는 과정으로는 사회화, 인지 작용, 조건화 및 행동 합리화가 있다. 따라서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데에도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태도를 변화시키려면 설득과 행동 유도 방법을 쓸 수 있다.⁷⁾

주요 상황 조건의 변화

주민들의 의식에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상정할 수 있는 상황 조건의 변화를 우선 점검해보겠다. 그러한 여건의 변화를 일종의 구조적 조건의 변화로 간주하고 그 성격을 파악함으로써 그와 같은 여건 변화에 주민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이론적으로 추론하기 위해서다. 물론, 상황 조건의 변화가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 어떻게 전개하는지는 소상하게 알 길이 없으므로, 밖으로 공개된 주요 사건들 중심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첫째, 시기적으로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현재의 북한 정황에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는 커다란 사건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상징하는 구소련 및 동구 공산 정권들의 몰락과 사회주의 체제의 종식이다. 객관적으로 보기에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이 사건을 북한에서는 어떻게 알려지고 인식되고 있는지는 북한의 변화

5) Festinger, L., 1958.

6) 김정동, 1979; 1985.

7) 권석만 외, 1996, pp. 292~294.

를 추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우선, 외부 세계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정보를 북한 주민들도 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북한의 대중 매체가 이를 보도하였다는 데서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비록 간접적이기는 해도, 북한 당국이 그러한 동구권 변화에 대하여 비판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러한 사실이 북한 내부의 변화 조짐을 추정하는 데 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한 예로, 1995년 6월 21일 북한의 중앙방송은 70여 분에 걸쳐 김정일이 6월 19일 발표했다는 '사상 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 수행에 필수적 요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방송하였다. 그리고 같은해 11월 2일자 「로동신문」에는 이 논문 일부를 러시아 작가(알렉산드르 브레주네프)가 인용하였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이 글에서 '여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좌절'에 대한 장황한 언급이 눈에 띈다.

요컨대, 일부 사회주의 국가와 공산당들이 사상 사업을 소홀히 하고 경제 건설에만 치중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경제도 침체하고 사회주의도 허물어 버렸으며, 그대신 자본주의를 복귀시켰다는 것이다. 이런 장본인들을 김정일은 '사회주의 배신자들'이라 칭하고, 이들이 사상 사업대신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자본주의 방법을 끌어들이어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조장시켰고,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주

장하는 반동 부르주아 선전에 동조하고 소유의 다양화를 제창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제도를 통째로 파괴하였다는 주장이다.

둘째, 역시 장기적인 변화의 결과로서 북한 주민의 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대할 만한 상황 조건은 경제의 침체 현상이다. 북한 경제는 1990년 이후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구소련 및 동구권과 중국의 개방·개혁 등 사회주의권의 변화가 대북한 경제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동력 자원을 비롯한 물자와 자본의 부족이 경제 침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제 악화라는 구조적 조건에는 북한 주민들의 참여도 일부 관계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반응은 어느 정도 유동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처럼 정치가 그 어느 부분보다 비중이 크고 정치 지도자의 우상화가 극치에 이르러 있는 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김일성의 사망이 가장 큰 변화요, 충격적인 경험일 것이다. 이 사건은 그 자체로서 북한 주민의 의식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성질의 것이다. 우상화에 의하여 '신격'을 과시하던 김일성도 사망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심각한 '인지적 불일치'를 야기시킨 사건으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도자의 교체 또는 승계, 이념과 정책의 변화, 정치적 갈등의 가능성 등이 주민을 불안하게 만들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 사건 자체는 북한 주민들의 개입이나 참여와 별개

의 것이기 때문에, 역시 그에 대한 반응도 다양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권력 승계 문제가 하나의 변화 요인이 된다. 공식적으로는 1980년에 김정일이 후계자로서 당의 승인을 받기는 했지만, 이미 70년대 초반부터 '지도자'의 존칭, 후반에는 '당중앙'의 호칭을 수여받았고, 1991년에 최고사령관, 1993년에 국방위원장의 지위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김일성이 사망하였다. 그 순간부터 김정일은 단순한 후계자의 위치에서 통치자로 급격한 자리바꿈을 경험하게 된 셈이다. 이후 그가 통치자로서 지위를 굳혀가고 있는 과정에는 북한 주민들의 참여나 개입이 일부는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도 다소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

그리고 1995년 여름의 대홍수라는 상황 조건의 큰 변화가 있었다. 이것은 북한 주민 스스로의 의지나 개입과는 전혀 무관하게 일어난 사건이므로 여기에 대해서도 동조적인 행동이나 태도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홍수가 가져온 수해는 약화 일로에 있었던 경제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켰고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건이므로, 이에 대한 반응에는 인간의 환경에 대한 적나라한 적응의 형태로 행동과 의식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수해로 인한 식량난을 해소하고자 북한 당국이 대외 관계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모습이 주민들에게 직·간접으로 알려

지게 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민의 언행에 나타난 반응의 성격

앞서 우리는 인간의 행동이나 태도를 변화시키자면 우선 새로운 정보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보는 전파, 사회화, 인지 작용 등의 과정으로 전달되며, 설득과 행동 유도에 의하여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는 심리학적 이론들을 개관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자원을 염두에 두고 위에서 지적한 상황 조건의 변화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반응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북한 주민의 의식 및 행동 변화를 전망하기로 한다.

사회주의권 변화에 대한 반응

구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에 대한 북한 당국의 해석에 관해서는 김정일의 논문을 일부 인용함으로써 이미 암시한 바 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도 그 정보는 일단 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정보가 사실 보도의 형식으로 있는 그대로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그것을 주민들 스스로가 인지하는 대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가서는 북한의 특수 사정을 고려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것처럼 중대한 사항에 대한 정보는 사실 보도보다도 당국의 관점에서 해석한, 말하자면 '채색된' 정

보 혹은 '왜곡된' 정보의 형식으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북한의 실정이다.

그렇다면 폐쇄된 북한 사회에서 일반 주민이 접하는 정보가 이처럼 굴절을 거친 것이라면, 북한 주민 대다수는 일단 당국이 전하고자 의도하는 정보에만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당국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앞에서 인용한 내용대로, 저들은 사회주의 '배신자들'이고 그들이 자본주의 유혹에 넘어간 까닭은 '사상 사업'을 등한시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사상 사업을 더욱 더 철저히 하고자 하는 데에는 일정한 수준의 문제 의식을 깔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북한 내부에서도 동구권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태에 관한 비교적 객관적인 사실 정보에 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정보의 원천은 대개 빛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우선, 국경 출입이 가능한 외교관, 해외 파견 무역 및 기타 노동자, 유학생, 만주 지방의 중국 국경을 오가며 무역이나 밀수업을 하는 상인들과 최근에 식량난으로 물물 교환을 위해 강을 건너는 일반 주민들, 귀북 별목공 등을 포함하여 북한 인민들이 국외에서 직접 보고 들은 정보를 가지고 입국하여 전파한다. 다음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 동포들 가운데 북한에 친인척을 둔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하여 현지 주민들과 접촉하는 가운데 외부 정보를 전하게 된다.

그밖에 외국의 언론인들이나 각종 비정치적 목적의 외국인들 방문이 정보 유입의 한 원천이다. 북한 당국자들은 해외 나들이나 남북 교류 과정에서 정보를 입수한다.

이런 정보 원천의 출입을 북한 당국에서는 때때로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특히 동구권 사회주의 몰락과 관련하여 1989년 10월 당중앙위원회에서는, "해외에 나가 있는 노동자·연구원·유학생을 소환할 데 대하여"라는 지시를 해외 공관에 시달하였으며, 이때 동구권에서 4,600여 명의 노동자와 400여 명의 연구생, 유학생 그리고 구소련과 중국에서 3,000여 명 등이 소환된 일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1996년 2월 10일 잠비아 주재 북한 3등 서기관 현성일氏 부부의 망명 등이 있는 후, 당국에서는 해외 거주 고위층 자녀들과 유학생들을 평양으로 긴급 소환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해진다.⁸⁾

이러한 경로로 정보가 유입된 데 대해서 북한 당국은 우선 저들 사회주의 붕괴의 원인을 '배신자들'의 잘못으로 돌리고, 북한 자체로는 '우리식 사회주의'로 무장하여 체제를 더욱 공고화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상 사업에 대한 주민의 반응이다. 이에 관해서는 두 가지 관측이 있다.

첫째, 그러한 사상 무장 정책이 별로 효험이 없어서 주민들이 반발한다는 견해가 있다.

8) 「내외통신」, 1996. 2.29: E1-E2.

9) 「내외통신」, 1996. 2.29: E1-E2.

최근의 자료를 직접 인용한다.⁹⁾

"현재 북한이 전개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으로 일색화'와 '비사회주의적 요소 타파'라는 사상 무장 교양 사업은 구명난 풍선에 바람넣기로 비유되고 있다. ...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현재 북한에서는 일반 주민은 물론 당·정·군 간부들까지 노동당의 '사상 무장 교양 사업'에 극도의 불만과 회의감을 표출하고 있다. ... 이러한 북한 주민들의 '당 사상 사업'에 대한 강한 거부감은 서방 세계의 자유로운 생활상이 여러 경로를 통해 침습·전파된 데 따른 '의식의 변화'로 전해지고 있다(강조점 필자). ... 이로 인해 최근 북한 각지에서는 체제 비판성 유인물이 살포되고 낙서, 투서 등이 성행하는 것은 물론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저항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 특히, 해외에 주재하는 공관원들은 '이미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패배했다'고 패배주의에 휩싸여 있는 데다, 열악하고 초라한 공관 생활로 인해 '차라리 조국을 바꾸고 싶다'는 말까지 내뱉고 있다."

둘째, 반대로 적어도 표면 상으로는 태도에 변화가 없다는 증거도 있다. 한 예로, 북한을

자주 방문하는 중국 교포 무역상의 기술을 그대로 옮긴다.¹⁰⁾

"작년에 북한 평안북도에서 작은 고모부가 친척 방문을 왔다고 해서 큰고모댁에 간 적이 있었다. 작은 고모부는 평안북도 선전일꾼으로 몇십년 동안 자기가 맡은 사업을 시종 일관 수행해왔고, '붉은 선동원정치선전술선 열성자'로 뽐혀 앞가슴이 축 늘어질 정도로 훈장을 수여받았다. ... 저녁을 먹고 함께 얘기했는데 작은 고모부가 먼저 우리의 심사를 굶어 놓았다. 아무래도 조국이 최고라며 빈부의 차없이 골고루 먹고 사는 것이 좋다고 말문을 열었다. 중국은 물이 나쁘고 환경이 오염되어 숨쉬기가 힘들다는 것이었다. 내가 반박을 하면 조선놈이 조국을 비난하느냐며 소리를 질렀다. ... 고모부는 지치지도 않고 수령님의 주체 농법으로 지금까지 먹고 살았다며, 우리식 사회주의를 휘방하는 일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몇십년 동안 세뇌가 되어서 도저히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여라 하지 않았다. ... 아무리 얘기해도 통하지 않아 우리는 감정의 골만 깊어졌다. ... 작은 고모부가 떠날 때 역전까지 배웅을 나갔는데, 그때도 여전히 몇년 후에 조국이 무척 발달할 것이라며 후회할 날이 있을 거라고 말했다(오자 원문)."

10) 남북문제연구소, 1996, pp. 68~70.

그러면 이 두 가지 견해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사실에 가까운가? 우선 한 가지 해석이 변할 것이라는 전망은 주로 남한의 관점에서 본 객관자적 관찰의 결과라고 한다면, 두번째 사례는 북한 사람의 견지에서 주관적으로 볼 때 가질 수 있는 태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더라도 두 가지 판단이 모두 일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세는 그러한 상반된 관점에 대한 이론적인 해명이다.

여기에서 주된 요인은 한편으로, 북한 내부의 정치 사회화의 효과가 분제되고 다른 편에서는, 외부로부터의 정보가 갖는 효과로 좁혀 볼 수 있다. 첫번째 변화 가능성은 아무리 정치 사회화의 위력이 크다 해도 그 자체에 대한 주민의 반작용이 생길 수 있으며, 외부 정보가 의식 및 행동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점에서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번째 사례에서 보듯이, 변화없이 과거 세뇌된 대로 신념을 고집한다는 점은 아무리 사실과 신념 사이에 괴리가 있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신념을 계속 지지하고 있고 당국의 압력이 상존하는 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인지적 불일치를 정당화하는 쪽으로 마음먹고 행동하게 된다는 이론이 설득력이 있다.

경제 악화와 흉수에 대한 반응

두번째로 심각한 상황 조건의 변화는 앞에

서 언급한 대로, 경제 침체에 얽힌 데 달친 식으로 발생한 대흉수다. 이처럼 경제가 극도로 악화되었을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전반적인 경제 침체와 같이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의 참여와 책임이 일부는 개입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적인 동조 압력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동조해야만 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흉수처럼 사회 성원들 스스로의 책임이 거의 없는 자연 재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당한 것이니까 사회적 압력에 동조할 필요없이 각자 자신이 살아갈 길을 찾을 수 있다.

우선, 경제난의 핵심은 식량 부족과 산업을 가동하는 데 필수적인 에너지원의 결핍이다.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에는 국제적인 식량 원조에 의지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각종의 농업 진흥책을 시행해야 한다. 북한 당국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시도하고 있지만, 크게 성공적인 것같지 않다. 외국의 원조에는 남북 관계와 기타 국제 관계의 교착이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내적인 생산 증식 사업에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문제는 KEDO를 중심으로 원자력 문제의 해결과 맞물린 맥락에서 원유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인데, 이 문제는 주민들의 일상과는 거리가 있는 쟁점인 듯하다. 당국으로서도 다급한 상황이라 그런지 달러 위조, 마약 거래, 무역 사

기, 불법 외화 반입, 밀수 사건 등에서 드러나는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 또한 주민들의 일상과는 거리가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주민들은 배급량도 줄고 실제로 굶주림을 경험해야 하므로, 당국에 대한 신념에 금이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짐작된다. 문제는 그러한 불만이 어떤 모양의 의식과 행동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다. 그 반응의 유형을 몇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극도의 체념을 들 수 있다.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상황에 대한 통제 능력이 거의 전무한 일반 주민으로서는 일종의 도피주의 내지 패배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 대안인 한 가지다. 그 예의 하나를 최근 북한을 다녀온 중국 교포의 보고에서 찾을 수 있다.¹⁾

“북한이 김일성 사망 후 제일 심한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을 때였다. 해주에서 기차를 타고 올 때도 기차안은 온통 강냉이 배낭들 멘 북한 주민들로 물셀 틈없이 꽉 들어차 있었다. 유리창이 깨진 채로 계속 운행되고 있는 열차 안은 빈 공간마다 강냉이 배낭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신문지와 잎담배가 타는 괴괴한 담배 연기 냄새가 역겹게 코를 찔렀다. 자리를 차지하지 못해 서 있는 아

낙네의 등에서는 아기가 큰소리로 울면서 보채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자리를 양보하려 하지 않았고 서로가 못 본 체 고개를 돌리며 아랑곳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동안 몇십 번이나 북한을 오갔지만 이같은 광경을 본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으기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수십 년 동안 당의 영명한 영도와 수령의 현명한 지도 밑에서 주체사상 교양과 공산주의 도덕 기풍을 교육 받을 대로 받았다고 하는 북한 주민들인데도, 서로가 양보하려는 눈치는 티끌만치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강마른 얼굴마다에는 ‘나도 살기가 귀찮다’라고 말하는 듯한 암담하고 굳은 표정들이었다.”

이 인용문에서 주목할 것은 북한 주민들이 ‘공산주의 도덕 기풍’을 익혔다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대목이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우리가 듣기로도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너무나 폐쇄적이고 통제가 심한 상태에서 사회화를 받았기 때문에, 심성은 비교적 단순하고 순박하며 집단주의적인 행동에 익숙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는데, 요즘은 마치 전쟁과 흡사한 극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자기 중심적이고 왜곡된 심성을 갖게 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기아를 모면하고 생존하기 위한 자

1) 남북문제연구소, 1996, pp. 90~91.

구책 강구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자구책은 가령 앞에서 인용한 「한겨레신문」 기사로 보도된 20대 여인의 경우처럼 나무 껍질을 벗긴다던가 나무나 풀뿌리를 캔다던가 하는 원시적인 식량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밖에 중국과 접한 국경 지대에서는 각종 불품을 식량과 교환하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교류가 자본주의 풍조 유입으로 일탈 현상이 만연해지는 것을 우려한 당국에서는, 최근에 이르러 국경 지역 통제를 강화하고 친척 이외의 출입을 엄중 금지하라는 김정일의 지시까지 있었다고 한다.¹²⁾

그러나 전쟁이나 극심한 기아와 같은 한계적인 상황에서 인간은 쉽사리 일탈 행동의 유혹에 굴복하게 되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최근 이러한 일탈 행동에 대한 보도나 소문이 자주 나타난다. 일탈 행동의 형태도 다양하다. 일반 주민들은 다급하거나 기회만 주어지면 사소한 식량과 일상 용품을 절도하는 행위가 주된 일탈 행동의 유형이고, 당이나 관료 사회에서는 각종 부정 부패가 만연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다만, 일반 주민의 일탈 행동은 한 번 발각이 되기만 하면 심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쉽사리 저지를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요즘은 '5호담당제'와 같은 주민 통제가 과거처럼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고 서로가

눈감아주는 성향이 눈에 띈다는 증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탈북자를 색출하여 소의 코처럼 쇠고리로 코를 꿰어 잡아갔다던가, 동네에 배회하는 돼지 새끼 한 마리를 슬쩍 숨겨 두었다가 잡아 먹은 것이 탄로가 나서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병을 얻게 되었다는 사례도 보고한 것이 있다.¹³⁾

청소년들의 일탈이나 관료 부패는 이미 과거부터 있었던 현상이기는 하지만,¹⁴⁾ 경제 상황이 극도로 어려워지면서 이러한 행위가 더욱 만연해지고 있다고 한다. 그 한 증거로 지난해 말에는 김정일이 이 문제를 직접 챙기게 되었고, 관료들의 부정 부패를 '사회주의체제 붕괴의 한 원인'으로까지 규정하여 반대 투쟁을 강화할 것을 고무하였다고 한다.¹⁵⁾

문제는 이와 같은 극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이 북한 사회 자체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지니게 되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체념에 의한 현상 유지 태도와 각종의 반발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 아마도 대다수의 주민들은 소극적으로 체념하면서 견디려 할 개연성이 높다. 북한의 체제 운영 방식이 적극적인 반대 활동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반복적인 사상 교양 사업에 길들여져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형태의 불만 표출과 저항 행위가 있다는 심증이 없지 않

12) 「내외통신」, 1995. 11. 2: G1.

13) 남북문제연구소, 1996; 김성철, 1994.

14) 이은죽, 1988; 1993; 유석렬, 1987.

15) 「내외통신」, 1995. 10.12: B1-B2.

다. 주로 귀순자나 북한 방문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직접 인용한다.¹⁶⁾

“북한 청소년들의 사고 방식이 한탕주의에 점차 물들어가고 있다. 가중되는 경제난과 획일적인 사상 교육에 염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놈의 사회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데, 잘먹고 잘입고 잘놀자’라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 사망과 김정일 권력 승계에 대한 반응

김일성 사망이 북한 주민에게는 아주 큰 충격일 것이라는 생각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다만, 그 충격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의문은 더 깊이 고찰해볼 필요가 있겠다. 우선,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이상화에 의하여 神的 존재가 된 사람이 사망했다는 것이 믿겨 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랫말에는 “이 봄 바쳐 수령님을 위하여 죽으면 내 그 품 안에 영생하리”라는 구절이 있다.¹⁷⁾

북한 주민들 가운데 진실로 김일성의 신격을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는 알 길이 없지만, 극단적인 정치 교화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

다.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졌던 사람들은 상당한 ‘인지적 불일치’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이들의 반응은 결국 김정일의 승계에 대한 충성심의 연장으로 정당화할 개연성이 높다. “대를 이어 충성하자” 등의 표어들이 김일성과 김정일은 한 몸을 강조하고 있다.

그 정도의 극단적인 충격은 아니더라도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충격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또 있다. 이상화와 역사 왜곡, 사상 교양 사업 등 정치 사회화의 영향도 있지만, 실제로 김일성은 현지 지도 등 온정주의적인 통치 행위로 서민들을 감화시키는 데 상당히 성공하였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의 사망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통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지 사정에 밝은 사람의 증언을 참조해보면, 김일성 사망과 관련하여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읽을 수 있다. 김일성 사망시 통곡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애뜻한 정서보다는 자신들의 처지를 슬퍼하는 울음이라는 것이다. 그 한 예로 중국 교포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다.¹⁸⁾

“김일성이 사망한 뒤에도 나는 빛을 받으

16) 「내외통신」, 1995: 10.5: F2-F3.

17) 이은죽, 1993, pp. 252.

18) 남북문제연구소, 1996, pp. 82~89.

러 평양과 북한땅 여러 지방을 여러 번 다녀왔다. ... 내가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수십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통곡하는 것을 보고 나도 목이 메어 눈물을 흘릴뻔 하였다' 라고 숙연하게 말했더니, 옥류회사의 전 종렬 부사장이 엄숙한 어조로 '위대한신 수령 김일성 동지가 서거했는데 통곡을 해도 부족할 판에 겨우 눈물을 떨굴뻔 했더니 수령님에 대한 감정과 충성심이 부족한 사람이구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비통한 심정으로 울고 있는데 그 무슨 주제넘는 소리인가?' 라고 호되게 핀잔을 주는 것이었다. 평소 우리 두 사람은 무슨 일이 있으면 허심탄화하게 의견을 나누어오던 사이였지만, 그때 당시에는 자기네 회사 일꾼이 있어서인지 엄한 비판을 퍼붓는 것이었다."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열린 추모대회가 광란의 울음 바다로 변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였던 것 같다. 하나는 몇십년 동안 김일성에게 당한 입제와 험벗고 굶주려온 자신들의 처지가 서러워 하소연하는 장소로 변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김일성이 죽은 뒤 더 혹심한 생활난과 굶주림에 허덕이는 운명이 될 것 같아 더 더욱 울부짖으며 까무라쳤던 것이다."

그러면 김정일의 승계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북한 당국

의 대응 이은 정치 사회화 즉, 이상화의 실상을 간략하게 점검하고 그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추정해보기로 한다. 무엇보다도, 김일성과 같은 반일 운동 경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카리스마를 이복할 만한 근거가 별무한 김정일이 자신의 권력 승계를 정당화하는 첫번째 수단은 '유훈 통치'를 명목으로 스스로의 권력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다. 그 단적인 예가 「로동신문」 1995년 10월 5일자 1면 첫 기사에 나와 있다. 필자는 김정일이고 제목은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이다' 라고 되어 있다. 내용 소개는 생략한다.

다음은 김정일 이상화로 넘어가는데, 여기에도 김부자를 동시에 부각시킴으로써 카리스마의 轉移 효과를 노리는 단계와 김정일 자신의 이상화 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다. 두 부자의 동시 이상화 예를 하나만 들겠다. 1995년 9월 30일자 「로동신문」(2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직접 발췌 인용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밭을 타시고 함께 거니시는 사진을 지난 7월 18일부 「로동신문」에서 우러르게 된 인민들 속에서는 폭풍같은 반향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이 뜻깊은 사진이 모셔진 「로동신문」을 손에서 놓지 못하며 혁명의 룡마를 타신 두분의 위대한 수령의 모습을 우러르게 된 감격과 환희로 끝없이 이야기를 피웠다. ...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

님의 거룩하신 그 모습을 끝없이 우러르고 싶어하는 인민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오늘 신문에 또다시 뜻깊은 사진을 정히 모신다.”

다음은 김정일 자신의 이상화 작업이다. 물론 여기에도 아버지의 후광을 최대한 이용한 다. 그 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그를 이른바 ‘백두산형의 위인, 백두의 령장’이라는 별호로 부름으로써 카리스마를 조작하고 있는데, 이런 이상화는 김일성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 둘째, 김일성시대부터 있던 것으로 김정일의 저작을 극찬하는 것이다. 그 예를 들면, 첫째는 「로동신문」 1995년 10월 27일자 기사이다. 이런 것은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 번의 예로도 충분하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은 백두산형의 위인, 백두의 령장입니다. 백두산, 장엄하고 신비롭기 그지없는 천하제일봉, 정일봉이 높이 솟아 빛나고 천고의 밀림이 끝없이 설레이며 소백수 푸른 물이 사연깊이 흐르는 혁명의 성산! 끓어오르는 걱정을 안고 백두산을 그려보느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산을 볼 때면, 김정일 동지를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김정일 동지는 백두산의 장군이 라고, 백두산은 김정일 동지의 고향이며 그의 당을 키워준 요람이라고 하신 말씀이 가슴뜨겁게 되새겨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실 김정일 동지처럼 문무총효를 다 겸비한 인민의 지도자는 드물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김정일 동지는 백두산을 닮았다고 하시며 백두산의 정기와 기상이 그의 온정신과 온몸에 차 넘치고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대를 이은 이상화에 대한 북한 주민의 반응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두 가지 해답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정치 사회화의 효과로 대다수 주민이 그냥 믿고 지내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김정일에 대한 이상화는 그리 성공적이 못된다는 것이다. 이상화의 주요 수단인 문예 창작에서부터 차질이 있다는 보도가 눈에 띈다. 「내외통신」 1996년 4월 18일자(G1-G2)에 따르면, 김정일의 군에 대한 영도력을 강조하는 작품 창작을 작가들에게 지시하였는데, 군 경력이 거의 전무한 주인공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어 군 경력 혹은 ‘업적’을 날조해야 하는 고민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과제로 바쁘다, 글재주가 부족하다는 등의 적당한 핑계를 만들어 기피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맺음말: 북한 주민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 전망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근자에 북한에서 일어난 상황 조건의 변화에 대한 북한 사람들의

반응 형태를 추정하여보았다.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를 결론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위에서 자료를 중심으로 반응 유형을 점검하면서, 대체로 두 가지 일견 상반된 개연성을 제시하였다. 그러한 기초는 결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살아 있으나, 다만 여기에서는 그에 대한 이론적인 해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먼저 아무리 객관적 상황 조건이 변했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현실에 체념하거나 당국의 사상 사업에 동조하며 생존을 영위할 것이라는 가설이 성립한다. 그 첫번째 주된 이유는 북한 당국이 어떤 수단 방법으로든지 체제를 유지시키려는 노력을 할 것인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상 사업, 교양의 강화로 의식과 행동을 묶어두는 것이라 하겠다. 앞에서 이미 사상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으므로, 당국의 대응 자세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만 인용한다. 가령, 1995년 9월 30일자 「로동신문」 기사는 아래와 같은 김일성의 교시를 인용하고 있다. “우리는 정세가 복잡하면 할수록, 우리 앞에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제기되면 될수록 자기 대오를 더욱 결속할 것이며,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따라 더욱더 용감하게 싸워나갈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심’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마치 종교적인 설교를 듣는 느낌을 준다.

두번째 이유는 이러한 사상 교양과 병행하여 일탈에 대한 통제와 집단 압력이 계속되는 점이다. 사회 통제가 얼마나 잔인하고 극단적인가는 이미 앞에서 예시하였고, 집단주의적 생활에 의한 동조의 강요와 감시 행위가 비록 약간은 느슨해졌다 해도 아직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 주민들은 그러한 통제와 압력에 일단은 동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번째 이유는 그동안 북한에서 일반 주민들의 당과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는 유인책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주장하는 긍정적·부정적 보강(reinforcement) 작용의 원리대로, 북한에서는 상과 벌, 소위 ‘당근과 채찍’을 교묘히 이용하였다. 모범적인 동조자들에게는 훈장을 때도 없이 수여하거나 식량 배급과 기타 생필품 제공의 형태로 선심을 쓰고, 비협조적인 사람들에게는 배급량을 줄이는 등 압력을 가하는 방법을 써왔다. 요즘처럼 식량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상벌 체계는 분명히 유인으로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이다.

네번째 이유는 아직도 상당수의 일반 주민들은 외부의 정보로부터 격리되어 있을 것이고 따라서 비교 집단이 결여된 상태에서 의식의 변화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다양한 통로로 정보가 유입되기는 하지만 아직은 극히 제한되어 있을 것이다. 최근에 국경 통제와 감시를 강화한다던가 외부 인

사들의 방문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일부 이러한 정보 유입에 대응하는 당국의 처사라 하겠고,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보의 통로가 열려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항이라 할 만하다. 이렇게 보면 사태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라던가 그에 따른 저항의 움직임이 심각한 것같지 않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황 조건의 변화가 너무도 뚜렷하고 충격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보가 차단되어 있고 비교 집단이 결여되며 동조의 압력이 크다 해도, 기본적으로 심각한 '인지적 불일치'를 경험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특히, 당국의 구호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실상은 주민들로 하여금 당국의 진실성에 대한 회의를 품게 할 것이고, 적어도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한 사람들의 갈등은 어떤 식으로든 해소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한 가지 대표적인 예로, 북한은 지난해의 대홍수 직후부터 대풍을 선전하는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1995년 8월 31일 중앙방송은 “아버이 수령님의 유훈 교시를 받들어 농업 근로자들이 올해 농사를 주체 농법의 요구대로 착실하게 한 결과, 이상 기후에도 불구하고 흐뭇한 풍년 작황이 마련됐다”고 선전했으며, 여러 군데의 실례까지 들어가며 풍년을 호언하였다.¹⁹⁾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 당국은 어쩌면 치명적일 수도 있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구소련과 동구권이 붕괴된 데 대한 분석에서 밝혀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저들 국가에서 당국이 계속 ‘거짓말’을 일삼아 했었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탄로가 났을 때, 국민이 들고 일어나 체제의 종말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북한도 이와 같은 엄청난 실상을 선전으로만 호도하려 한다면 조만간 현실과 선전의 괴리가 드러날 가능성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적어도, 아직은 일반 주민들이 그러한 ‘인지적 불일치’를 당국의 발표를 믿는 쪽으로 해소하고 있지 않을까 추정할 수 있다. 비교할 외부 정보가 부족한 것이 실상일 터이고, 또 당국을 믿자고 하는 사람들의 수가 그 반대 쪽으로 생각하자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을 개연성이 크다. 이처럼 주위에 동조자들이 있으면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정보라 할지라도 그대로 수용하려는 방향으로 태도를 정한다는 것이 ‘인지적 불일치’ 이론의 요지이다.

물론 일탈 행위가 평소보다는 더 빈번해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사보타주(sabotage) 형식의 저항 행동마저 발견된다고 하지만, 북한과 같이 사상 교양과 집단주의적 동조 압력이 강한 사회라면 이런 간헐적인 저항이나 일탈

19) 「내외통신」, 1995. 10. 5: E1-E3.

20) 「내외통신」, 1995. 10. 12: G2.

및 사보타주 등으로 체제에 금이 가는 심각한 사태가 오리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인 진단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는 데 결정적인 요소는 역시 외부 세계에 대한 정확하고 사실적인 정보의 입수 내지 유입이라 하겠다. 이러한 정보가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 상당한 정도 번진 다음에야 우리는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기초한 변화의 움직임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귀환 별복공들이 바깥 세상에 대한 정보에 밝다고 해서 이들을 북한에서는 '경제박사'라 부른다고 하는데,²⁸⁾ 이런 식으로 일부 사람들이 비록 외부 정보를 획득한다 해도 그것이 보편화되어 사람들의 인지적 불일치와 당국에 대한 불신을 전사회적인 범위로 확산시켜, 이제는 더 속일 수도 없고 체제를 지탱해가기가 벅찬 수준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할 수 있겠다.

결국, 북한 체제가 변하는 데에는 북한의 엘리트층 내부에서 생긴 분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할 수밖에 없고, 일반 주민들의 생각이 좀 바뀐다고 해서 체제 자체의 변혁을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다만, 북한의 엘리트군은 대부분 친인척이나 개인적 연고로 얽혀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트 내부의 분열이나 와해를 단언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어쩌면 일종의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을 적용하는 접근으로 북한 사회의 변화를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은 기존의 사고 방식과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해체'하고, 과거로부터의 인식론적인 단절을 감행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마음의 자세부터 고치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북한 사회도 같은 논리로 김일성 사후에 기존의 전근대적인 의식을 과감히 탈피하고(이것이 근본적인 개혁인 셈이다), 외부의 새로운 문화에 용감하게 접하면서(이는 개방에 해당한다) 다가 오는 21세기 신문명의 창조를 향해 크게 한 번 변신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제안을 하는 까닭은 어차피 남북 관계의 개선과 통일을 염두에 두었을 때, 북한 주민의 의식에 어떤 변화가 도움이 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해두고자 하는 데 있다. 앞서 기차 안에서 아기가 배고파 우는 모습을 보고도 서로 못 본 체 하는 북한 사람들의 정경을 인용한 것을 상기할 때, 그동안 북한 주민들이 폐쇄와 통제에 길들여져서 그나마도 심성이 단순 소박한 면이 있었다고 하는데, 경제 사정이 악화됨으로써 자포자기가 되던가 아니면 불평 불만으로 심성이 비틀어지는 결과가 온다면 이는 우리 모두가 장래를 위해서 우려할 만한 일이다. 기왕이면 우리가 남북 통합으로 새로운 문명을 창조함으로써 세계사에 기여

하고자 한다면,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지녔던 소박한 심성에 손상이 가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자체가 지금과 같은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기 보다는, 바깥 세상과의 적극적인 접촉(개방)에 의하여 과거의 유형으로부터의 단절과 새로운 유형으로의 전환(개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야만, 통일 후에 남한이 떠 안게 되는 정신적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게 되고, 동시에 사회 문화적 차원의 진정한 민족 통합의 길이 더 쉽게 열릴 것이다. [5]

참고 문헌

권석만 외, 「심리학개론: 전정판」, 박영사, 1996.
 김경동, 「발전의 사회학」, 문화과 지성사, 1979.
 ———, 「현대의 사회학: 전정판」, 박영사, 1985.
 김성철, 「북한 관료 부패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4.
 남북문제연구소, 「중국 교포 무역상을 통해서 본 북한의 실상」, 남북문제연구소, 1996.
 「내외통신」, 제973호, 1995. 10.5.
 ———, 제974호, 1995. 10.12.
 ———, 제977호, 1995. 11.2.

—————, 제994호, 1996. 2.29.
 ———, 제1001호, 1996. 4.18.
 「로동신문」, 1995. 9.30.
 ———, 1995. 10.5.
 ———, 1995. 10.27.
 ———, 1995. 11.1.
 ———, 1995. 11.2.
 유석렬, 「일탈: 원인, 유형, 통제 방법」, 「북한 사회의 구조와 변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7, pp. 61~94.
 이은죽, 「북한 사회 연구: 사회학적 접근」,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
 ———, 「북한 사회의 체제와 생활」, 법문사, 1993.
 차재호, 「남북 통일에 대한 심리학적 조망」,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통일과 심리적 화합」, 한국심리학회 통일문제 학술 심포지움, 1993, pp. 1~17.
 「한겨레신문」, 1996. 4.30.
 Festinger, L. et al, "When Prophecy Fails," pp. 156~163 in E. M. Maccoby et al.(eds.), *READINGS IN SOCIAL PSYCHOLOGY*, Henry Holt and Co., 1958.